

지역 소식통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정상섭 의원은 5분 자유발언 '현대(형) 자연재해에 대응할 정책적 전환 절실해'를 통해 공공건물의 누수 전수 조사후 휴결에 대한 보수 보강과 건물 신축이나 수선 시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할 근본적 정책전환이 절실함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업 매입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를 통해 정읍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업 인수에 대해 시민에게 음식물 처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문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상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립미술관 및 우도농악 전수화관 이전 제안'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시립미술관 이전과 문화예술의 규모화와 집적화를 위해 정읍 무형문화재 우도농악전수화관을 시립박물관 부지와 건물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읍=김대환기자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점검

정읍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2일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정읍역 농특산물 홍보판매장과 녹두장군 휴게소 상·하 행선 등 3개소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 사회 확산 방지와 더 안전한 농특산물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다.

주요 점검내용은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소독제 비치, 기기(계산대, 출입문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등이다. 또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조성을 위해 우수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의 안전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기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고창, 생태관광지 평가 최우수

사업비 총 12억원 등 확보... 기반시설 조성 탄력 공동플랫폼 구축·수익창출 사업 모범 모델 호평

정읍 월영습지·솔티숲

정읍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평가단이 12개 시·군의 생태관광지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시는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2021년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비 12억원(국특이항 6억, 도비 3억, 시비 3억)과 인센티브 5천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2021년 완공 예정인 방문자 지원센터 건립사업과 탐방로 등 생태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월영습지는 2011년 실시한 전국 습지 조사에서 처음 발견된 습지로 2014년에 환경부에서 습지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솔티숲은 내장산 자락의 아름다운 원시숲으로 깃대종인 비단발레와 진노랑상사화 같은 멸종위기종과 73종의 자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월영습지와 솔티숲은 전북형 생태관광 육성사업 공동플랫폼 구축을 위한 행정과 주민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수익모델 개발로 주민 주도형 생

태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생태관광의 선도적인 모델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시는 월영습지와 솔티숲이 우수한 생태자원과 지역경제 발전의 조화를 꾀할 100년 대계로 보고 생태관광 명소로의 단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생태관광지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생태관광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 가치를 있는 그대로 즐기며 심신을 정화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고창군의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이 올해 전라북도 시·군 생태관광지 사업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전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시·군 평가는 경쟁력 있는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해 자원 우수성, 시장성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을 전문평가단이 평가했다. 생태관광 기반구축과 운곡습지 6개 마을 주민공동체 중심의 토요장터, 생태탐방 등 수익창출사업이 생태



고창군의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이 올해 전라북도 시·군 생태관광지 사업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관광의 모범적인 모델로 인정 받았다. 국제생태관광 인증을 목표로 운곡습지 복원과 보존을 통한 생태계 다양성과 지속성 부분에서 호평이 이어졌다. 이번 평가로군은 내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비 12억원의 집중지원과 특색 있는 맞춤형 모델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50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고창군은 12개 시·군 가운데 2018년부터 3년 연속 S등급(최우수)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그간 고창군은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57억 원을 투자해 탐방로 정비, 생태개울

복원과 야생화단지 조성, 생태마을 조성 등을 추진해 왔다.

현재 운곡습지는 지속적인 습지복원으로 청정지역의 대표 지표종인 반딧불이 개체수가 눈에 띄게 늘어 새로운 반딧불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생태관광지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비전 전략 수립영역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군과 운곡습지 주민마을이 생태계복원과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울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운곡습지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힐링과 치유의 생태관광지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해수욕장 안전사고·코로나 감염 제로화

총 38일간 운영... 역대 최장 전년대비 이용객 34% 증가

부안군은 지난달 31일을 마지막으로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을 종료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올해 7월 11일 변산과 모항, 격포와 고사포, 위도 등 관내 해수욕장 5개소가 일제히 개장을 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 17일까지 총 38일간 운영되었으며 폐장후에도 이용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면서 8월 31일까지 안전과 방역관리를 연장 운영해 역대 최장 운영기간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에는 가나긴 장마와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이용객수가 전년 대비 34%나 증가한 18만명 이상으로 나타나 관광 부안의 위상을 높였고 코로나19 영향으



부안군은 지난 31일을 마지막으로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을 종료했다.

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모처럼의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이는 이용객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져 있고 갯벌체험을 함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 19 청정지역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3차 특별재난지역 아산·공음·성송면 포함 피해 주민·기업 지방세 지원

고창군이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아산면·공음면·성송면이 포함됨에 따라 피해 주민과 기업에게 지방세 관련 지원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내용으로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이다.

이번 호우로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지역에서 피해대상지로 확인된 납세자는 취득세, 주민세(종업원)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부과된 지방세도 2년까지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체납지도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최대 2년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등이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감면(기존 물건 시가표준액 한도)하고 침수 등으로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에 방문해 신청해 주시고 재난안전과 복지지원팀과 유효해 증빙자료 제출 등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4-H연합회 비대면회의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7일 4-H연합회 비대면 회의를 열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청년농업인 단체인 정읍 4-H연합회(대표 김상의)의 의사결정권에 대해 비대면 화상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농업기술센터 내 마련된 교육장에 최소인원인 임원 5명이 참석해 회의 준비와 화상 연결을 점검했다.

참여 회원들은 집이나 영농현장에서 휴대폰을 통해 비대면 회의에 참석해 예산 집행 변경사항 등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인해 앞으로 언택트(비대면) 회의나 교육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농업인의 수요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읍 4-H연합회는 전국 4-H연합회와 발맞춰 현재 1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었다. 4-H 모토인 명석한 머리(Head), 충성스러운 마음(Heart), 부지런한 손(Hands), 건강한 몸(Health) 실천을 위해 농업기술 공유, 봉사활동, 과제학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